

저평가 받는 항일 여성 독립영웅들... 존재조차 잊고 있었다

[3 · 1운동 백년과 여성]

여성 독립유공자 357명...전체의 2% 불과 자금 전달책 · 정보원 역할 등 활약 저평가 민간단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화해야”

일제 강점기 민족 최대 독립운동인 3·1운동이 올 해로 100주년을 맞게 됐다. 100년 전 그날,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외침은 우리 나라 항일 운동 역사를 비춘 분수령이 됐고, 그 주인공은 일제에 극렬히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이었다.

그런데 항일운동에 나선 독립운동가 중에서 여성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실재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포상을 받은 여성 독립유공자는 총 357명에 불과하다. 포상을 받은 전체 독립 유공자가 모두 1만 5180명인 점에 비춰볼때 여성 독립유공자는 2%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운동 전반 곳곳에 포진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에 따르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당시 음식·의복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특히 전달책이나 정보원 임무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의심의 눈을 피하기가 훨씬 용이했기 때문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최근 연구소가 발굴한 여성 독립운동가 38명 명단을 봐도, 이들은 대부분 지역공작대 내에서 정보수집과 자금 전달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해당 명단에 대해서 현재 연구

소 측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 독립 운동가들은 왜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을까.

가장 큰 이유로는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꼽힌다.

민간 독립운동 단체 등에 따르면 1960년대 정부의 독립운동가 발굴 초기 당시 그 대상은 큰 규모의 독립운동 단체 지도자급이 중심이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지도자급 독립운동가 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명단에 포함될 사람들도 단 서훈을 받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지난해 여성 독립운동가 서훈 기준을 일부 손질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여성·학생 독립운동가의 경우 육교를 3개월 이상 지내야 인정해 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아무리 독립운동을 많이 해도 육교 3개월이 안되면 그동안 서훈이 안 됐는데, 그 기준을 없애면서 학생들이 정학이나 퇴학 받은 것도 다 인정되고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작업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2.8 독립선언과 3.1 혁명 100주년을 맞아 8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어린이공원에 설치된 항일독립운동여성상 모습.

소장은 “2013년 6월 발표된 전체 여성독립운동가 현황 논문 발표 당시 223명이었는데, 6년 정도 흐른 상황에서 357명이면 많은 숫자가 증가한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선 작년과

올해를 거쳐서 추가적인 발굴은 많이 된 것이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발굴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 정도인데 왜 전엔 안했나 하는 부분”이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것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풀을 만들고 체계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내 아들 안중근, 비겁하게 삶 구걸 말고 대의에 죽는게 효도다”



1910년 2월14일 휘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혐의를 받는 안중근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 소식은 국내에 머물던 어머니 조마리아에게도 전해졌다. 조마리아는 안중근의 두 동생 정근과 공근을 급파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어머니가 장남에게 전하는 편지가 들려있었다. 편지를



꺼내 읽은 안중근은 아내 충격에 빠진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刑)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다.”

곧 죽게 될 아들에게 조마리아가 한 말은 “그렇다”, “보고싶다”가 아

母 조마리아, 면회 안해...명주실로 짠 수의만 전달

니라 “죽으라”는 것이었다. 대의에 죽어서 나라를 살릴 것을 당부하는 어머니의 결기에 항소를 고민했던 안중근은 곧장 마음을 바꿔먹었다. 죽음 앞에서 잠시나마 약해질 뻔했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안중근은 동생들과의 짧은 면회를 마치고 되려 편안한 표정으로 감옥소로 들어갔다. 그렇게 안중근은 ‘항소 포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 말은 아마도 우리 독립운동 역사를 통틀어 가장 뜨겁고도 슬픈 한 마디일 것이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죽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조마리아는 장남 안중근에게 그렇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 말 자체가 독립운동이라고 본다. 오일환 의병정신선양회 회장(전 보훈교육원장)은 논문 “조마리아의 생애와 여성리더십”에서 “아들의 행동이 분명 국가를 위한 의거였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

이며 일본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출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훗날 안중근의 순국은 물론 조마리아의 이같은 기개가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해지면서 1919년 ‘3·1운동’ 등 독립을 향한 열원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 또한 독립운동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909년 10월26일 안중근의 하얼빈 거사(巨事) 이후 일제는 조마리아는 물론 안중근의 동생 정근과 공근도 심문했고 두 동생은 한 달 간 육교를 치르기도 했다. 조마리아와 그 가족은 혐의점이 없었기에 풀려났지만, 일제는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이유로 집요하게 조마리아를 괴롭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조마리아는 일제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 아들이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

나라의 일로 죽는 것은 국민 된 의무이다.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는다면 나 역시 아들을 따라 죽을 따름이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후 약 4개월이 지난 1910년 2월14일 휘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중근에 대한 1심 선고심에서 사형이 떨어졌다.

일제는 당시 안중근의 변호인 선임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당시 안중근 변호인을 지처한 러시아·영국인 변호사가 있었지만, 안중근은 한국인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를 맡기를 원했다. 조마리아는 평안으로 가 독립운동가인 안병찬 변호사에게 아들의 변호를 요청했고, 안병찬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일제는 일본 형법으로 일본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일본인 외에 외국인 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다며 안중근의 변호인 선임을 방해했다. 이에 안중근의 변호는 일본 관선 변호인 미즈노 기치타로 등 2명이 맡게 된다.

안중근과 조마리아의 일화는 당시 언론에 의해서도 회자됐다. 국내 ‘대한매일신문’과 일제 ‘아사히신문’ 등은 두 사람 관련 소식을 실고 ‘시모시자(是母是子)’라고 했다. ‘그 어머니에 그 아들.’

이 이야기는 일본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휘순 고등법원장 히라이시 요시토는 수감된 안중근을 찾아가 항소할 것을 권했으나 거절했다. 변호사 기치타로 또한 감형받아보자고 설득했으나 안중근은 거부했다. “나는 처음부터 무죄요, 무죄인 나에게 감형을 운운하는 것은 치욕이다”라는 게 안중근의 답변이었다.

안중근의 간수였던 치바 사토시리는 인물 또한 안중근과 조마리아 일화에 탄복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사학자인 박육운 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한국여성독립운동가’에 쓴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의 항일구국적 생애’에는 사토시가 모자의 인행에 감동받아 안중근에게 평생 사과하며 살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910년 3월26일 오전 10시4분, 안중근은 절명했다. 조마리아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면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을 앞둔 아들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걸로 풀이된다. 조마리아는 사형 집행 전날 정근과 공근을 다시 휘순으로 보냈다. 그들의 손에는 조마리아가 보낸 명주실로 짠 하얀 수의(凶衣)가 들려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가짜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